

작년 수능 세계지리 응시 9073명 한등급 오른다

교육부, 출제오류 판정 피해학생 구제 세부 방안 발표

원점수 3점 올려 성적 재산정... 내년 3월 정원 외 입학

출제 오류로 판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884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73명(48%)의 등급이 한 등급 오르게 됐다. 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882명이 2점 각각 상승했으며,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1~12점 상향 조정됐다.

이는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의 산정 기준을 변경된 원점수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고 작년 기준 성적 산정 때 동일하게 적용 처리한 결과다.

대학은 피해학생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바탕으로 작년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다시 산정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정시 모집은 재산정한 성적이 미등락 중원의 합격선을 넘었는지 추가 합격의 기준이 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에 정원 외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기존에 적용했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의 기준을 유지하되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의 원점수만 3점 올리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당초 모두 정답처리한 상황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다시 산정하려 했다가 2008년 출제 오류로 성적을 재산정했던 '몰리II' 때 방식을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 중 이번에 성적이 변경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해당 문항이 틀려 본래 가고자 했던 대학보다 성적이 낮은 대학으로 하향 지원한 수험생들은 관련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 정원 외로 해당 대학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가

게 되는데,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교에서 이수학점을 동일 학과, 계열 여부 등을 고려해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추가 합격 여부는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12월 19일) 이전인 12월 17일부터 해당 학생들에 안내된다.

추가 합격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다니고자 하면 내년 2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단 학생들의 정원 외 추가 합격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재산정한 수능 성적결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추가 합격 여부는 12월 17일부터 대교협 홈페이지(www.k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학회 “생명과학II 8번 문항 복수정답 인정해야”...평가원에 의견 전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II'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자문한 학회 3곳 중 2곳에서 출제오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20일 관련 학회에 따르면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문제가 된 8번 문항의 보기 '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참이라고 볼 수 없어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항은 대장균이 젓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과 관련,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보기 'ㄱ'과 'ㄷ'이 옳다고 보고 정답을 4번이라고 제시했지만, 보기 'ㄱ'이 교과서에서 다르게 기술돼 있다며 정답 2번도 맞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학회인 한국미생물학회는 정답이 평가원이 제시한 4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한 학회는 아

직 평가원 측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 전문 학회 3곳 중 2곳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하거나 평가원 측정답이 틀렸다고 보고 있어 '생명과학II' 8번 문항의 복수정답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자문한 학회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열어 오는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따뜻한小雪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인 22일, 광주·전남지역은 눈이 내리는 대신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교적 따뜻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고기압의 영향으로 24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5일 밤까지 계속될 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3 몰림 05:35
해질 17:24 달림 16:40

'소설(小雪)'이어도 날씨가 좋아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음.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4/16	보성	맑음	-1/16
목포	맑음	6/16	순천	맑음	4/16
여수	맑음	8/15	영광	맑음	2/16
나주	맑음	0/17	진도	맑음	3/16
완도	맑음	5/17	전주	구름많음	3/16
구례	맑음	-1/16	군산	구름많음	2/15
강진	맑음	1/17	남원	구름많음	0/15
해남	맑음	1/18	축산도	맑음	9/15
장성	맑음	0/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	0.5	남	0.5
남부	남	0.5~1.0	남	0.5~1.0
남해	북	0.5	북	0.5
서부	동	0.5~1.0	동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15	00:45
	18:49	13:26
여수	밀물	썰물
	08:19	01:42
	20:19	14:20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5/17	5/15	6/13	6/12	5/13	4/14	5/14

◇생활지수

식중독	36
운동	70
빨래	90

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 '속얇이'

지로용지 배포 요청에 구청 공무원·통장들 반대 입장

동별 적십자사 봉사단·모금위원회 모금활동 대안 제시도

내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묘수(妙手)는 없을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내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다음달 1일~1월 31일)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회비모금을 위해선 회비납부를 위한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나눠줘야 하는데, 그간 배부해왔던 광주지역 각 구청 공무원과 통장들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각 구청 동장과 통장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적십자사 회비 등에 대해 설명회를 한 뒤 각 구청 공무원과 통장들이 직접 나서 회비납부 고지서 전달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등이 지난해 각 구청·동 주민센터간 실적경쟁 부추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마다 강제 동원해온 관행을 거부하면서 모금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이날 부정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적십자사는 일일이 통장들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맡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고용하지는 방안은 동네 지리를 잘 몰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편발송은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

적십자사가 속얇이를 하면서도 대안을 찾는 이유다. 일각에선 적십자사가 각 동별로 적십자사 봉사단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모금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통해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적십자사는 다음달 첫째 주부터 지로용지를 배부할 계획이다. 내년도 모금목표액은 29억 원. 올해 모금실적은 29억700만 원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체력이 이쯤은 돼야” 20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에서 열린 '2014 환경미화원 체력검정'에 응시한 참가자들이 15kg짜리 모래주머니를 짊어지고 50m 달리기 하고 있다. 이날 체력검정엔 132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24명(남자 20명·여자 4명)이 선발됐다. 북구는 다음달 5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외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외 2종

원적외선 히터외 11종

대형 제습기외 2종

이동식 에어컨외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외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시·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착한 소장수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인원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원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일 맞출트렌드 손님들께 꼭꼭박박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